

# 油風에 關한 文獻的 考察

張聖恩\* · 蔡炳允\*

## I. 緒 論

油風은 갑자기 頭髮이 탈락하면서 頭皮가 鮮紅色을 띠고 반짝이는 만성 피부병으로 현대중국에서는 “斑禿”이라고 하는 脫毛症狀의 하나이다. 과거의 문헌 상의 기록으로는 明의 陳實功이 지은 <外科正宗><sup>43)</sup>에서 처음 “油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많은 책들속에서 脫毛症의 한 형태로 다루고 있다. <黃帝內經><sup>34)</sup>에는 ‘髮落’, ‘髮墮’ 등의 기록이 있고 <難經><sup>72)</sup>에서는 ‘毛落’이라 하였고 <諸病源候論><sup>74)</sup>에서는 ‘鬼舐頭’라고 하였다. 油風과 관련된 것은 이 외에도 鬼剃頭<sup>62)78)</sup>, 鬚髮禿落<sup>68)74)</sup>, 髮落不生<sup>41)42)75)</sup>, 脫髮<sup>21)58)60)70)80)</sup>, 斑禿<sup>17)38)39)45)49)50)58)62)64)70)71)80)</sup> 등의 여러 표현이 있는데 <外科正宗><sup>43)</sup> 이전에는 별다른 구분 없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油風은 韓醫學用語大辭典<sup>41)</sup>에 의하면 “頭髮이 部分的으로 脫落되며 皮膚色이 붉은 빛으로 光彩가 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中國醫學大辭典<sup>82)</sup>에도 간단한 原因, 症狀, 治法이 기록되어 있다.

특징으로는 頭髮이 갑자기 片狀으로 脫落하며 보통 無意識중에 발견하고 두피는 圓形이나 不規則한 鮮紅色의 斑片을 보이는 것이다. 분류하자면 頭髮이 부분적으로 탈락하는 것을 斑禿이라고 하고 頭髮이 전부 탈락하는 것을 全禿, 증상이 심해서 眉毛, 鬚鬚, 腋毛, 陰毛, 심지어는 鬚毛까지 전부 탈락하는 것을 普禿이라고 구분한다. 이 병은 연령의 구분이 없이 누구에

거나 발병할 수 있는데 주로 靑壯年層에 많은 것으로 보인다.<sup>39)</sup>

위와 같은 油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이 글에서는 油風의 명칭이 다양하여 혼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각각의 定義를 비교하고 時代別로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하며 油風의 原因에 대해서도 時代別로 바뀌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조사해보고자 한다.

## II. 資料의 對象 및 研究方法

### 1. 資料의 對象

油風이나 脫毛症과 관련되는 역대 문헌들과 현대 중국 문헌들, 그리고 양방적인 논문들에게까지 널리 알아보고 그 내용을 발췌하여 연구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 2. 研究方法

그 방법으로는 中國文獻 44種, 國內文獻 33種 (韓方文獻 16種, 洋方文獻 17種), 辭典類 6種을 가지고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油風의 原因, 症狀, 治療, 治方을 중심으로 조사, 정리한다.

2. 과거의 文獻들에서는 原因이나 治法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3. 現代 中國 文獻들에서는 새롭게 제시되는 治法들이나 醫案들을 중심으로 치료방법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外官科教室

4. 양방논문에서도 새로운 治療傾向이나 機轉들에 대해서 조사한다.

5. 가장 많이 거론되는 原因이나 處方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기로 한다.

6. 油風의 治법을 內治와 外治로 구분하고 針灸治療나 기타방법도 조사한다.

7. 시대에 따라 油風의 名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사한다.

8. 油風의 原因에 대해서도 변화상을 정리하여 조사한다.

### III. 文獻資料 및 本論

考察의 편의를 위하여 朝鮮時代의 文獻은 明清時代와 함께 수록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參考한 文獻中 중요한 것들을 選擇하여 時代順으로 정리하는데 書籍名, 油風의 名稱, 原因, 症狀, 處方까지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자료중에서 前代의 글을 인용한 것이 있으면 인용된 글의 右側에 參考文獻의 番號를 표기하기로 한다.

#### 秦漢代

書籍	名稱	原因	症狀	處方
黃帝內經 <sup>(4)</sup>	髮落, 髮墮	多食甘, 陽明脈衰, 腎氣衰	骨痛而髮落, 面始焦, 髮始墮	無
難經 <sup>(72)(83)</sup>	毛落	損于皮毛	皮聚而毛落	無

#### 隋唐代

書籍	名稱	原因	症狀	處方
諸病源候論 <sup>(4)(80)(81)</sup>	鬢髮禿落, 鬼舐頭, 白禿	血氣衰弱 經脈虛竭 不能榮潤, 人有風邪在頭 有偏虛處, 頭瘡有蟲, 癩白而髮禿落	鬢髮禿落, 髮禿落 肌肉枯死. 或如錢大 或如指大 髮不生 亦不痒, 人腹內九蟲內蟻蟲, 值血氣虛 髮動所作	無
千金方 <sup>(56)</sup>	無	無	無	石灰酒, 生眉毛方
外臺秘要 <sup>(73)</sup>	無	無	無	深師療髮白及禿落茯苓散方, 療禿頭方, 主髮落生髮方, 主風頭毛髮落不生方

#### 宋元代

書籍	名稱	原因	症狀	處方
太平聖惠方 <sup>(64)(56)</sup>	無	血氣虛少枯竭; 若風邪升其經絡 血氣改變; 血氣衰弱, 經脈虛竭, 不能榮潤	變黃白不生; 異色惡髮妄生; 鬢髮禿落	眉髮鬢不生諸方, 鬢髮禿落諸方
聖濟總錄 <sup>(75)</sup>	無	腦虛衝脈衰 無以營養故	髭髮不生 或生而黃悴	無

明代

書籍	名稱	原因	症狀	處方
普濟方 <sup>57)</sup>	白禿,赤禿	夫禿之爲害 因血氣虛乘風而上,夫諸陽脈皆在於頭 風熱乘之則陽邪熾盛	癩疔不去而痒 髮髮脫落 無復生榮,發於頭皮腦絡之間 細瘡徧密 赤色有汁 痒痛浸淫乃至髮落	無
醫方類聚 <sup>56/74/68)</sup>	頭髮脫落	無	髮落不生	洗髮菊花散, 生禿烏雲油方, 髮生方, 訶子散
醫學綱目 <sup>41/42/47)</sup>	髮落不生	脈弦氣弱 皮毛枯槁,此厚味成熱 濕痰在隔間,又口多吃梅 酸味收濕熱之痰 隨上升之氣至於頭 蒸薰髮根之血	髮脫落 臍下痛,漸成枯槁 遂一時盡脫	黃芪建中湯, 四君子湯 加熟地,防風通聖散去芒硝, 滋榮散 三聖膏 括瓜葉 麻子,
醫學入門 <sup>55)</sup>	鬚髮脫落	精華不能上升 秋冬令行 金削肺枯, 腎枯火炎 肺痿 內風妄動	致鬚髮焦槁 如灰白色	腎氣丸 單天門冬膏, 外用黑附子 蔓荊子 栝子仁 等分爲末
證治準繩 <sup>42/41/47)</sup>	髮落不生	醫學綱目斗 上同	醫學綱目斗 上同	醫學綱目斗 上同 括瓜葉 滋榮散 三聖膏 麻子 麻葉 桑葉 生半夏 羊矢 烏麻花 生烏麻
萬病回春 <sup>76/77)</sup>	眉髮脫落	飲食勞役及惱怒, 勞傷精血, 陰火上炎	眉髮脫落	補中益氣湯加麥門, 五味, 及六味地黃丸加五味
東醫寶鑑 <sup>33/72/76)</sup>	鬚髮黃落	虛損之疾 一損 損於肺	皮聚而毛落	八物湯
壽世保元 <sup>76/77)</sup>	無	飲食勞役及惱怒, 勞傷精血, 陰火上炎	眉髮脫落	補中益氣湯加麥門, 五味, 及六味地黃丸加五味
外科正宗 <sup>43/66/78)</sup>	油風	血虛不能隨氣營養肌膚	毛髮根空, 脫落成片, 皮膚光亮, 痒如蟲行	神應養真丹, 海艾湯

清代

書籍	名稱	原因	症狀	處方
外科大成 <sup>43/71/74/7)</sup>	油風	風熱乘虛攻注 血不能榮養,	毛髮成片脫落, 皮膚光亮, 痒如蟲行	神應養真丹, 海艾湯
醫宗金鑑 <sup>78/44/79)</sup>	油風	毛孔風襲致傷血	毛髮乾焦脫, 皮膚光亮痒難堪	神應養真丹, 海艾湯
石室秘錄 <sup>79)</sup>	眉落;鬚落	無	無	桑葉
瘍醫大全 <sup>83)</sup>	眉髮脫落; 眉毛白落	肝血受傷而火動; 肝虛血少, 無以榮養, 或風濕相搏,	過服辛熱藥而眉髮脫落	四物湯, 六味地黃湯

書籍	名稱	原因	症狀	處方
續名醫類案 <sup>51)</sup>	眉髮頓落	肝腎素虛 爲怒所激陰火愈熾 鎖鍊精血而然 素不慎房勞等	其髮忽落 或發熱惡寒 或吐痰頭暈 或口乾作渴 或小便如淋 兩足發熱 或冷至脛 獨足三陰 虧損而陰火內熾	六味丸料加柴胡山梔黃柏; 朝用十全大補 夕用六味丸料加炒黑黃柏枸杞
濟衆新編 <sup>11)</sup>	鬚髮榮枯黃落	血燥風動;肺虛;脈弦氣弱	少壯鬚髮落	腎氣丸 防風通聖散;八物湯;黃芪建中湯
驗方新編 <sup>67)</sup>	眉爛毛脫;眉毛不生	肝經受風	無	側柏葉;黑芝麻花;黑芝麻油
醫宗損益 <sup>35)</sup>	無	無	鬚髮稍脫落 不留一毫	燈心 麥門冬

### 最近代

이 시대의 문헌들은 주로 고대의 처방에 대한 현대의 기법들을 가미하여 기술된 것들로 내용이 종합적이어서 표로 정리하기가 곤란하므로 나열식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 ○ 萬病醫藥顧問<sup>52)30)</sup>

油風類

病源

風乘虛襲入 醉後毛孔開張 當風乘涼 邪風乘虛襲入 居於毛竅肌膚之間 久之 風邪壅盛 血脈燥澀 不能榮養膚髮 以致毛髮乾焦 成片脫落 是謂油風病 此證 俗名 鬼剃頭

…中略…

調養

①須避風寒 油風病服藥後 須避風寒 宜靜臥一小時 則藥力更大 若服藥後 毛竅開處 誤經風寒 則勢深入 病非特不愈 且加劇也 此最宜注意

②忌食動風發物 油風病忌食鷄鵝羊肉蚌蛤河豚蝦蟹海腥等物 並須戒酒 否則無痊望也

③忌用手搔 油風病痒時 忌用手搔 以指甲有毒搔則

毒延入內 勢必加劇 如痒劇不可忍時 宜時海艾湯洗之 則既能止痒 又可祛風

#### ○ 中醫師臨床手冊<sup>30)</sup>

斑禿

一. 辨證施治: 治法:補腎, 養血, 祛風. 方藥舉例 神應養真丹 二錢, 每日三次

二. 局部處理 搽脫發水

三. 單方草藥: 鮮毛茛擦患處, 每日二次; 當歸, 栝子仁 各一斤, 共碾粉, 蜜丸, 每日服三次, 每次二~三錢; 蒲公英三兩, 黑豆一斤, 加水煮熟, 去蒲公英, 加糖適量煮乾, 每天吃豆一兩

四. 針灸療法: 梅花針 敲刺脫髮部皮膚(不要出血), 隔日一次

#### ○ 中醫外科學<sup>71)</sup>

[病因病理]:由于血虛不能隨氣營養皮膚, 以致毛孔開張, 風邪乘虛襲入, 風盛血燥, 髮失所養而成片脫落; 或因情志抑鬱, 肝氣鬱結, 過分勞累, 心氣乃傷, 氣滯血瘀, 毛髮失養所致; 因肝藏血, 髮爲血之餘, 腎主骨, 其榮在髮, 若肝腎不足, 亦能導致脫髮

[治療]

一. 內治

(一) 辨證施治

① 血虛風燥證: 宜養血祛風, 方用神應養真丹加減

② 氣滯血瘀證: 宜理氣活血, 方用逍遙散合通發活血湯加減

③ 肝腎不足證: 宜補益肝腎, 方用七寶美髯丹加減

(二) 效驗驗方: 百烏片(成藥) 或當歸片或丸(成

藥), 每次5片或10粒, 1日3次; 養血安神片(成藥), 每次10片, 1日3次

二. 外治 毛竇外擦

三. 針刺 病期長久, 可在脫髮處用七星針移動擊刺, 1日1次

○ 朱丹溪醫案<sup>47)(41)(42)</sup>

女子, 十七八歲, 髮盡脫, 飲食起居如常, 脈微弦而澀, 輕重皆同, 此厚味, 成熱濕痰在膈間, 復因多食酸梅, 以致濕熱之痰, 隨上升之氣至於頭, 薰蒸髮根之血漸成枯槁, 遂一時脫落, 治須補血升散, 乃用防風通聖散去硝惟大黃酒炒三次兼以四物合作小劑與之, 月餘診其脈, 知濕熱漸解, 乃停藥淡味二年, 髮長如初

○ 千家妙方<sup>53)(12)</sup>

○ 東醫處方大全<sup>8)</sup>

머리카락이 빠지는 중에 사용하는 處方들은 禿瘡膏, 生禿烏雲油, 苦楝子膏, 二仙丸 등이 있고 단방이나 민간요법에는 ① 생강, 끼무릇, 참기름: 생강으로 털이 빠진 곳을 문지른 다음 끼무릇 가루를 참기름에 개어 바른다. 눈썹과 머리카락이 빠진 데 쓴다. ② 참깨: 생으로 기름을 내어 번대머리에 바른다. ③ 곰의 기름: 백독창으로 머리카락이 빠진 데 바른다. ④ 할미꽃의 잎이나 뿌리, 박새풀의 잎이나 뿌리: 1:1로 섞어서 짓찧어 그 물을 진하게 물에 풀어 매일 머리를 씻는다. ⑤ 철쭉뿌리: 진하게 달여 매일 머리를 감는다.

辨證	治法	方名	處方
心腎不足 血不榮髮	補腎榮髮 養血寧心	四物湯二 至丸加減 方	生地黃 熟地黃 墨旱蓮 桑椹子 制首烏 硃茯神 黃精 各15g 當歸 木瓜 各9g 靈磁石30g 砂仁 川芎 各6g 白芍12g 水煎服, 每日一劑
熱邪傷肺 皮毛憔悴	清泄肺熱 涼血解毒	柏葉殺劑	鮮側柏葉32g 75% 酒精 100ml 將鮮側柏葉放入酒精中浸泡, 七天後方可使用, 用棉球蘸藥液少許, 在脫髮處搽拭, 每日三次, 堅持使用.
肝血不足 血餘失養	補養肝血 佐以益腎	加減美髯 湯	何首烏 當歸各30g 杭白芍12g 魚鱧膠(烱化) 補骨脂 淡竹葉各9g 菟絲子 枸杞子 懷牛膝各10g 代赭石 炙甘草各6g 連翹心4.5g 水煎服, 每日一劑
肝腎不足 血虛脫髮	滋補肝腎 養血生成	加味養血 生髮湯	生地 熟地 鷄血藤 首烏藤 白芍 桑椹各15g 生黃芪30g 川芎 旱蓮草各9g 明天麻 冬蟲夏草 木瓜各6g 水煎服, 每日一劑
肝鬱血虛 血不榮髮	補益肝腎	二至丸加 味	女貞子 菟絲子 旱蓮草 桑椹子 制首烏 熟地 杞子 茯苓各12g 當歸 肉蓯蓉各9g 水煎服, 每日一劑
腎虛血虛 氣血不足 不能上行 榮髮	補腎益氣 養血	贊化血餘 丹加味	血餘炭 胡桃仁各10g 熟地 山藥 黨參各18g 炙首烏30g 巴戟天 菟絲子 杜仲 續斷 鹿角膠(炒成珠) 肉蓯蓉 當歸 茯苓 枸杞子 女貞子 旱蓮草各12g 小茴香6g 上藥共為末, 蜜為丸, 每丸10, 每日服三次, 每次一丸
肝血不足 腎精虛衰 不榮于髮	補腎精益 肝血	新制生髮 湯	制首烏24g 熟地 側柏葉 黃精各15g 枸杞 骨碎補各12g 當歸 白芍各9g 紅棗5g 水煎服, 每日一劑, 一個月為一療程
心陰虛 心 腎不交	滋陰清熱 補心安神	加味天王 補心丹(湯)	生地 熟地 天冬 麥冬 炒杏仁 栝子仁各20g 茯苓 五味子 桔梗各10g 炒遠志6g 當歸12g 明沙參30g 丹參 玄參 旱蓮草 女貞子各15g 制首烏60g 甘草3g 水煎服, 每日一劑

○ 漢方外科<sup>30)52)</sup>

油風

◇原因: ① 皮膚毛孔이 開張되어서 風邪가 毛孔 및 肌膚로 侵犯하여 血液을 燥澁하게 만들어 皮膚나 毛髮에 營養을 供給하지 못해서 ② 神經性 障礙

◇療法: 食餌療法 및 生活樣式: 닭, 거위, 羊肉, 조개, 河豚(복), 새우, 海腥魚類, 술 등을 忌하고 服藥한 후나 洗滌한 후에 風寒을 辟하고 安靜하여야 하며 손으로 긁어서 病毒이 침입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藥物療法:

① 神應養眞丹을 投與하고 海艾湯으로 洗滌한다.

② 體質이 健康한 사람: 防風通聖散을 投與한다.

③ 遺精, 夢精 등이 있는 사람: 防風通聖散을 投與

④ 全身衰弱으로 인한 脫毛: 六味地黃湯에 苦參 11.5g을 加하여 使用한다.

⑤ 박귀를 까맣게 태워서 粉末하고 硃砂를 고사리물 또 분말하여 서로 합하여 참기름에 調製하여 바름

★針法: 毛髮이 脫落된 곳을 針刺하여 紫色이 나는 出血을 시키면 毛髮이 다시 재생한다.

○ 皮膚科學<sup>6)</sup>

圓形脫毛症

원인: 본증은 약 2천년전의 Celsus부터 기술되어 왔지만 아직도 원인불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에 의하여 자가면역기전으로 생각되며 여기에 유전적 소인과 정신적 자극이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진다.

증상: 보통 자각증상없이 직경 1내지 5cm의 원형의 탈모반이 발생한다. 탈모반내에는 주위 정상부위보다 약간 함몰되어 있다. 탈모반의 가장자리에는 짧은 그루터기 털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느낌표모양으로 보여서 감탄부호모발이라고 부른다. 사춘기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는 자

연회복되는 경향이 있다. 圓形脫毛症은 대개 동반되는 질환이 없이 건강한 사람에게서 발생하지만 아토피피부염, Down 증후군, 갑상선염이나 백반증 같은 자가면역질환 환자군에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발생빈도를 보인다.

진단: 염증, 반흔, 위축을 동반하지 않는 원형 또는 그 비슷한 모양의 탈모반이 특징적이다. 감탄부호모발의 유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진단에 상당히 유용하다. 두부백선, 홍반성 무푸스, 발모벽 등과 감별하여야 한다.

예후: 한 개 또는 수개의 작은 병변은 4 내지 12개월에 자연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 탈모반이 하나 또는 수개 이하로 나타나며 보통의 圓形脫毛症에서는 부신피질호르몬제의 병변내 주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 각종 면역반응유발물질로 병변부위에 접촉자극을 일으키거나 일차성 자극물질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음은 현대중국문헌에 새롭게 제시된 처방이나 치료법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도표는 다음 page에 있으며 이 외에 다른 처방들을 소개하면

蛇床子膏(사상자, 오미자, 원지 각 3냥, 토사자, 계시백 각 5돈, 육종용, 송진 각 2냥, 석용황, 자황 각 1냥, 돼지기름 1되2흡, 흰꿀 2흡),

木蘭皮膏(목란피, 두형자, 진교, 부자, 대황, 석남, 고삼 각 1냥, 백반, 진주가루, 석용황, 수은, 송진 각 5돈, 졸인 돼지기름 2근), 검정콩, 복숭아꽃, 돼지기름,

王不留行湯(왕불류행, 복숭아나뭇가지(동남쪽으로 썬 것), 산수유뿌리(동쪽으로 썬 것)겉질 각 5냥, 사상자, 모형자, 고죽엽, 질려자 각 3되, 삼씨 1되)등이 있다.<sup>10)</sup>

이 외에도 다른 현대중국문헌들과 양방논문들이 있지만 일일이 요약발해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고찰부분에서 근거를 밝히면서 제시하기로 한다

促髮再生酊 <sup>36)</sup>	人參19g 桃仁15g 紅花 側柏葉 川芎各10g 川花椒6g 當歸15g 骨碎補30g을 사용하여 잘 짊어서 소주 500ml에 넣어서 浸泡하여 걸렀다가 사용
梅花針 <sup>64)</sup>	치료부위는 斑禿區와 風池平行線(양측의 風池를 잇는 선)을 이용, 이 부위는 醒腦開竅작용을 하고 督脈의 經氣가 腦內로 出入하고 頭頂으로 上行하게하여 毛髮을 營養하게 한다. 叩刺法을 사용하고 輕症에는 皮膚가 潮紅이 되게 하고 重症에는 皮膚에 微微한 出血이 되게 한다.
生髮湯 <sup>70)</sup>	木瓜 當歸 羌活10g, 旱蓮草30g, 生地 熟地 茯苓 菟絲子12g, 首烏 白芍 天麻 甘草15g을 水煎服하는데 滋肝腎, 補氣血, 祛風濕하여 脂溢性脫髮을 치료
陸氏斑禿湯 <sup>70)</sup>	當歸 赤芍 白芍 熟地 制首烏 巴戟 肉蓯蓉 熟女貞 桑椹子 各12g, 川芎 羌活 荊芥 各10g, 丹參15g을 水煎服 養血活血祛風하고 滋補肝腎하여 斑禿을 치료
六味生髮飲 <sup>70)</sup>	生地 熟地 側柏葉 各15g, 當歸 黑芝麻 各20g 首烏25g 水煎服 養血, 滋陰, 補肝腎하므로 각종 脫髮에 사용
柴胡加龍骨牡蠣湯 <sup>11)15)</sup>	筋骨質로서 체력이 있고, 大柴胡湯과 小柴胡湯을 사용할 type의 中間型으로 心下部에 抵抗이 있으며, 臍部에 動悸가 있는 경우가 많고, 上氣症, 心悸亢進, 不眠, 不安, 焦躁같은 神經症狀이 있는 경우
桂枝加龍骨牡蠣湯 <sup>11)15)</sup>	虛弱體質인 경우
斑禿의 經驗方 <sup>58)</sup>	髮黃以致落髮, 用柚子核五錢, 開水浸泡, 一日二至三次塗抹無髮處, 即有助益. 이 외에도 辣椒酒, 老薑片, 牙齦, 薔荊子 등을 사용한다.
眉毛不生 <sup>67)</sup>	黑芝麻油; 桑葉七片; 旋覆花 天麻 防風各一錢; 雄黃末一兩; 生旱蓮草 등을 쓴다.
脫髮 <sup>60)</sup>	榧子3枚 核桃2枚 側柏葉30g을 함께 짊어서 반죽을 하고 눈 녹은 물에 풀어서 頭髮을 빗질을 하고 씻는다.
加味四物湯 <sup>49)</sup>	當歸, 白芍, 赤芍, 生地, 熟地, 川芎, 丹參 各15g, 何首烏 20g을 쓰고 外用으로 補骨脂酊을 사용
中成藥 <sup>17)</sup>	血虛에 偏盛: 人參歸脾丸이나 八珍丸을 每回1丸, 每日2回 服用. 局所治療는 斑蝥10g을 百部酒 100ml에 浸한 것을 外用
全身毛髮脫落 <sup>54)</sup>	女, 43세 頭皮光亮色鮮, 不紅不腫, 時有瘙癢, 精神欠佳, 失眠多楚, 胃納欠佳, 大便乾結, 二日一解, 月經量少色暗, 舌紅, 苔薄白, 脈沈細한 증상에 滋腎養肝, 養血生髮하는 治法으로 當歸 熟地 紫河車粉 黑芝麻 各12g 赤芍 女貞子 何首烏 黃精 白芷 白鮮皮 枸杞子 各9g을 쓰고 別途로 鮮生薑汁 30ml와 桃核油 15ml를 바름

#### IV. 考 察

油風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풀이해보면 '油'字의 의미는 "光潤"하다는 의미(漢語大辭典에 의하면 "寬舒和順貌"라는 의미도 있으나 "光潤貌"의 뜻이 油風의 증상으로 비추어 볼 때 더욱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로 여겨지고 '風'은 병리성 증후를 나타내는 한 유형으로 病勢가 急聚하고 多變하는 것을 의미<sup>69)</sup>하는데 脫毛症狀이 갑자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기는 것 때문에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의 한방 문헌<sup>34)41)42)68)73)74)76)77)</sup>에서는 油風을 一般的인 脫髮과 구분하지 않고 단지 머리

가 빠지는 것 자체를 증시하였다. 그래서 油風의 原因이나 症狀, 治法을 論함에 있어서 脫髮의 因症治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脫髮이라는 표현속에 油風이나 脂溢性脫髮<sup>70)</sup> 등이 함께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다. 明清의 醫家들<sup>43,66,78)</sup>에 와서야 局限性脫髮을 油風이라고 稱하였던 것이다.

油風을 가리키거나 類似한 많은 명칭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보기로 한다.

<內經><sup>34)</sup>에서는 髮落, 髮墮라고 하였고 巢<sup>74)</sup>는 鬢髮禿落, 白禿, 赤禿, 鬼舐頭, 眉毛脫落 등의 증후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鬼舐頭라는 것은 俗語로 사용되는 것인데 의미는 “鬼神이 물래 닳은 머리”이며 症狀를 不知中에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宋代의 처방 중심의 의서들<sup>58,73,75)</sup>에서는 巢<sup>74)</sup>의 분류를 대부분 수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明代에 와서 王<sup>42)</sup>과 樓<sup>41)</sup>는 東垣과 丹溪의 醫案을 거론하면서 髮落不生으로만 표현하였다. 熊<sup>76,77)</sup>도 鬢髮脫落, 眉毛脫落의 표현을 하면서 烏鬚에 중점을 두었을 뿐 油風과 비슷한 증상을 설명한 것은 없었다.

明代 末에 와서 陳<sup>43)</sup>은 처음으로 油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神應養真丹과 海艾湯의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이후 清代에 들어서 祁<sup>66)</sup>와 吳<sup>78)</sup>도 陳<sup>43)</sup>을 따라 油風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처방도 그대로 따랐다. 吳<sup>78)</sup>는 특히 “鬼剃頭”라는 俗語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귀신이 물래 닳은 머리”라는 의미정도가 되는 것 같다.

이후에 清代에는 陳<sup>71)</sup>이나 顧<sup>65)</sup>, 鮑<sup>67)</sup> 등은 油風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髮落不長, 忽然脫落 등의 증상을 그대로 記述하였고, 眉毛脫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들이 현대중국에 와서는 다시 변화가 생겨서 油風이 斑禿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油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sup>14, 37, 48, 61, 71)</sup>도 있지만 斑禿<sup>17, 38, 39, 45, 49, 50, 58, 62, 64, 70, 71, 89)</sup>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냥 脫髮이라고 한 것은 脫髮이라는 증상에만 치중된 것<sup>21, 58, 60, 61, 89)</sup>이며 수<sup>80)</sup>는 유일하게 斑禿과 脫髮을 구분하여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 근래에 와서 “咬髮癬”이라는 용어가 일부<sup>39)</sup>에서 사용되었고 “禿頭”<sup>21)</sup>라고도 하며 “禿髮”이라는 표현은 日本의 矢數<sup>11)</sup>나 臺灣의 朱<sup>58)</sup>가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許<sup>33)</sup>나 康<sup>1)</sup>, 黃<sup>35)</sup> 등이 기록을 남겼는데 모두 鬢髮脫落이라는 정도의 증상위주로 기술하고 있고 油風 등의 표현은 기록하지 않았다.

명칭을 정리해보면 油風에 해당하는 것은 斑禿, 禿髮, 鬼舐頭, 鬼剃頭, 咬髮癬 등이며 脫髮은 넓은 의미이고, 초기에 사용되었던 鬢髮禿落, 髮落不生 등은 油風의 한 증상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대로 같은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白禿과 赤禿은 瘡, 疽, 癩, 疥, 細疥 등이 생긴 뒤에 脫髮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엄격한 의미의 油風은 아니다. 그러나 油風이 같이 동반하는 질환으로서 유추해석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제 油風의 原因을 시대별로 보면

秦漢代의 <黃帝內經><sup>34)</sup>에서는 女子 五七 陽明脈衰와 男子 五八 腎氣衰를 들어 생리현상으로서의 髮墮의에 多食甘하면 骨痛하면서 髮落한다고하여 五味의 所傷함을 밝히고 있다. <難經><sup>72)</sup>에서는 損脈之爲病으로 해서 皮毛가 損傷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후 隨代의 巢<sup>74)</sup>는 鬢와 髮을 膽과 腎으로 各各 나누어 配屬하면서 자세히 분류하였는데 血氣衰弱하여 經脈虛竭되면 不能榮潤하여서 鬢髮이 禿落한다고 하였다. 또 鬼舐頭를 기록하고 原因을 風邪가 머리에 있는데 偏虛한 곳이 생기면 髮落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小兒와 婦人에게 생기는 白禿候를 따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이후 隋唐代의 孫<sup>56)</sup>과 王<sup>73)</sup> 등은 각각의 증상들에 대해서 처방들을 제시한 것들을 종합해 놓았다.

宋代의 <太平聖惠方><sup>68)</sup>에서는 巢<sup>74)</sup>를 따라서 足少陰, 足太陽, 足少陽, 足陽明, 手陽明의 血氣가 각각 髮, 眉, 鬢, 髮, 髭를 기른다고 하고서



血氣虛少하면 枯竭해서 黃白색으로 변하고 不生하며 風邪가 經絡을 가하면 血氣가 改變하여 色이 이상해지고 惡髮이 髮生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聖濟總錄><sup>75)</sup>에서는 骨髓와 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腦虛 衝脈衰라는 원인을 제시하였다.

明代에 와서 樓<sup>41)</sup>는 東垣과 丹溪의 처방을 例示하면서 東垣은 脈弦氣弱者가 皮毛枯槁하고 髮脫落하며 丹溪는 厚味成熱하여 濕痰이 隔間에 있고 또 酸味를 많이 먹어서 濕熱之痰이 생기면 上升之氣를 따라서 머리에 이르러 髮根之血을 蒸煎하므로 점점 枯槁해지고 드디어는 盡脫하게 된다고 하였다.<sup>47)</sup> 그 뒤 李<sup>55)</sup>는 內風血燥로 인해서 鬚髮脫落이 생긴다고 보았다. 또 王<sup>42)</sup>은 樓<sup>41)</sup>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東垣과 丹溪의 의견을 적고 있다.

樓<sup>76)77)</sup>은 飲食勞役, 惱怒로 인해서 勞傷精血하고 陰火上炎해서 鬚髮脫落이 생긴다고 하여 좀더 종합적인 原因機轉이 제시되었다. 동시대의 우리나라에서는 許<sup>33)</sup>가 <雜經><sup>72)</sup>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毛落은 損於肺가 원인이라 하였다.

油風의 認識이 정리되면서 陳<sup>43)</sup>은 血虛하여 肌膚를 營養하지 못하고 風熱이 乘虛한 것 때문에 髮落한다고 보았고 清代에 들어서 祁<sup>66)</sup>나 吳<sup>78)</sup>도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祁는 風熱乘虛 血不能營養; 吳는 風盛燥血, 不能榮養毛髮) 陳<sup>43)</sup>을 따서 그대로 血虛風熱을 원인으로 보았다.

이후 陳<sup>79)</sup>은 腎水枯, 任督血乾으로 생기는 白髮에 관심을 가져서 髮落만의 원인을 쓰지는 않았다. 顧<sup>65)</sup>는 血熱生風하면 風木이 搖動해서 脫髮이 되고 過服辛熱藥하면 肝血이 受傷하고 火가 動하여 眉髮이 脫落하게 된다. 眉毛도 肝虛血少, 或風濕相搏하여 脫落한다고 하였다.

顧<sup>65)</sup>와 같은 시대의 魏<sup>51)</sup>는 여러 원인을 나열하고 있는데 大怒發熱하여 眉髮이 갑자기 떨어진 경우, 燥藥을 복용하여 肌의 陰血을 損傷하므로 陽氣가 偏旺하여 빠지는 경우, 不慎房勞하여 髮이 갑자기 落하는 경우, 祛風辛燥之劑를 久服하여 元氣虧損을 일으켜서 빠지는 경우들이 이야기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康<sup>1)</sup>은 腎精을 중시하면서 血燥風動하거나 肺虛하면 鬚髮이 榮枯黃落한다고 하였고 鮑<sup>67)</sup>는 眉爛毛脫이 肝經受風所致라고 하였으며 眉毛不生에 대해서도 거론하였다.

이제 최근대로 들어오면 원인에 대한 견해가 거의 통일이 되어 가고 있는데 먼저 陸<sup>52)</sup>은 風邪가 乘虛하여 襲入하므로 醉後에 毛孔이 開張되었을 때 바람을 맞아 邪風이 침입하면 毛竅肌膚之間에 居하여 오래되면 風邪가 壅盛하고 血脈이 燥澁하여 膚髮을 營養하지 못하여 毛髮이 乾焦해지고 脫落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陳<sup>43)</sup>에서 기원하고 있는 原因論이 발전된 형태이다. 그리고 顧<sup>71)</sup>은 원인들을 총괄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3가지로 血虛하여 皮膚를 營養하지 못하면 毛孔이 開張하게 되고 風邪가 虛함을 틈타서 襲入하게 되고 風盛血燥하고 髮失所養하므로 成片脫落하게 된다; 또한 或情志抑鬱과 肝氣鬱結, 過分勞累로 인하여 心氣가 傷하게 되고 氣滯血瘀하면 毛髮이 失養되어 빠지게 된다; 또한 肝藏血하고 髮爲血之餘이며 腎主骨하고 其榮在髮이므로 肝腎이 不足해도 역시 脫髮이 생기게 된다. 蔡<sup>30)</sup>는 陸<sup>52)</sup>의 原因說에다 神經性 障礙設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李<sup>12)53)</sup>은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 ① 心腎이 不足해서 血不榮髮한 경우
- ② 熱邪傷肺하여 皮毛가 憔悴한 경우
- ③ 肝血이 不足하여 血餘失養한 경우
- ④ 肝腎이 不足하고 血虛하여 脫髮한 경우
- ⑤ 肝鬱血虛하여 血不榮髮한 경우
- ⑥ 腎虛血虛하며 氣血이 不足하여 不能上行榮髮한 경우
- ⑦ 肝血이 不足하고 腎精虛衰하여 不榮于髮한 경우
- ⑧ 心陰이 虛하여 心腎이 不交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현대 문헌들이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血虛風燥(血虛風熱, 血燥風動) 等

포함)<sup>1114213739487071</sup>, 氣滯血瘀(情志抑鬱, 肝鬱等 포함)<sup>21397071</sup>, 肝腎不足<sup>214514854071</sup>의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 진다. 이것과 조금 다르게 氣血兩虛<sup>142148</sup>, 心血不足<sup>45</sup>, 血瘀毛發<sup>48</sup>, 脾胃氣虛<sup>61</sup>, 氣陰兩損<sup>61</sup> 등을 제시한 것도 있기는 하다.

이제는 처방을 간단하게 제시해보기로 한다.

처방도 陳<sup>43</sup>이 神應養眞丹을 만들기 이전에는 증상에 따라서 六味地黃湯, 四物湯, 防風通聖散 등이 加減되어 운용되었다. 陳<sup>43</sup> 이후에는 祐<sup>61</sup>, 暉<sup>78</sup> 등이 처방까지도 그대로 답습하였고 현대 문헌들<sup>374314561171</sup>에서도 血虛風盛型에 神應養眞丹이 가감되고 있다.

內服藥, 外用藥, 單方藥, 針灸治療 등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써보기로 한다.

내복약은 治其本하는 것으로 원인에 따라서

1. 神應養眞丹<sup>3013714314515261166711781</sup>
2. 六味地黃湯<sup>50651761771</sup>, 腎氣丸<sup>1551761771</sup>, 六味丸料加柴胡山梔黃柏<sup>51</sup>, 六味丸料加當歸黃芪<sup>51</sup>, 六味丸料加炒黑黃柏枸杞<sup>51</sup>, 六味地黃湯加苦參<sup>30</sup>
3. 四物湯<sup>65</sup>, 加味四物湯<sup>49651</sup>, 四物湯倍熟地加茯苓白朮丹皮山梔甘草<sup>51</sup>, 四君子湯加熟地黃<sup>4142</sup>, 八物湯<sup>1171331</sup>, 八珍湯加麥冬五味<sup>51</sup>, 十全大補湯<sup>51</sup>
4. 四物湯合六味地黃湯<sup>48</sup>
5. 補中益氣湯加茯苓<sup>51</sup>, 補中益氣湯加麥門五味<sup>761771</sup>
6. 黃芪建中湯<sup>142431</sup>
7. 防風通聖散<sup>30</sup>, 防風通聖散去芒硝<sup>414247</sup>
8. 逍遙散合通竅活血湯加減<sup>37171</sup>, 逍遙散加減<sup>61</sup>, 通竅活血湯<sup>48</sup>
9. 七寶美髯丹加減<sup>17374861171</sup>
10. 柴胡加龍骨牡蠣湯<sup>11151</sup>, 桂枝加龍骨牡蠣湯<sup>11151</sup>
11. 歸脾湯加減<sup>45</sup>, 四物湯二至丸加減方<sup>121531</sup>, 加減美髯湯<sup>121531</sup>, 加味養血生髮湯<sup>121531</sup>, 二至丸加味<sup>121531</sup>, 贊化血餘丹加味<sup>121531</sup>, 新制生髮湯<sup>121531</sup>, 加味天牛補心丹<sup>121531</sup>, 洗髮菊花散<sup>56</sup>, 髮生方<sup>56</sup>, 二仙丸<sup>81</sup>
12. 單方들은 많은데 石灰酒<sup>51</sup>, 訶子散<sup>51</sup>, 禿頂膏<sup>81</sup>, 苦楝子膏<sup>81</sup>, 單天門冬膏<sup>55</sup>, 三倍丸<sup>75</sup>, 地黃

丸<sup>75</sup>, 槐實膏<sup>75</sup>, 槐桃膏<sup>75</sup>, 汞蛭油<sup>75</sup>, 烏金散<sup>75</sup>, 石榴漿<sup>75</sup>, 三物膏<sup>75</sup>, 五苓散<sup>73</sup>, 神應膏<sup>29</sup>, 斑禿湯<sup>39</sup>, 活血生髮湯<sup>62</sup>, 生髮散<sup>62</sup>, 補腎湯<sup>62</sup>, 消痞理脾湯<sup>50</sup>, 陶氏斑禿湯<sup>70</sup>, 生髮湯<sup>70</sup>, 生髮飲<sup>70</sup>, 六味生髮飲<sup>70</sup>, 摩髮膏<sup>10</sup>, 胡麻膏<sup>10</sup> 등이 사용된다.

외용약은 治其標하는 것으로 海艾湯<sup>304348152661781</sup>, 鮮側柏葉<sup>121531601651671731</sup>, 老薑<sup>1737158161</sup>, 桑葉<sup>4260631671</sup>, 生薑<sup>54651</sup>, 滋榮散<sup>41421</sup>, 三聖膏<sup>41421</sup>, 黑芝麻<sup>60671</sup>, 補骨脂酊<sup>481</sup>, 冬蟲夏草酒<sup>481</sup>, 生禿烏雲油<sup>84561</sup>, 黑附子<sup>73</sup>, 蔓荊子<sup>581</sup>, 栝子仁等爲末<sup>411551</sup>, 鮮毛蠶<sup>40171</sup>, 當歸栝子仁<sup>401</sup>, 蒲公英 黑豆<sup>401</sup>, 甾瓜葉<sup>41421</sup>, 麻子<sup>411561</sup>, 生柏葉 豬膏 附子<sup>561</sup>, 半夏<sup>421</sup>, 羊矢<sup>421</sup>, 烏麻花<sup>41421</sup>, 生烏麻<sup>41421</sup>, 菟絲子<sup>671</sup>, 旋覆花<sup>571</sup>, 天麻<sup>671</sup>, 防風<sup>671</sup>, 雄黃<sup>671</sup>, 旱蓮草<sup>671</sup>, 桃核<sup>601</sup>, 梔子<sup>601</sup>, 川烏粉<sup>37611</sup>, 川椒<sup>651</sup>, 辣椒<sup>581</sup>, 梔子<sup>651</sup>, 胡桃肉<sup>651751</sup>, 麻葉<sup>421</sup>, 牙齦<sup>581</sup>, 柚子核<sup>581</sup>, 斑蝥<sup>17371</sup>, 猫屎灰<sup>731</sup>, 狗乳<sup>731</sup>, 半夏<sup>731</sup>, 牛羊角灰<sup>731</sup> 등이 사용되었다.

처방을 다시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血虛風燥證에는 神應養眞丹, 氣滯血瘀證에는 逍遙散合通竅活血湯, 肝腎不足證에는 七寶美髯丹을 중심으로 각각 加減하여 사용하고 있다.<sup>71</sup>

침구요법은 梅花針, 七星針, 耳針 등을 사용하는데 장기간 낫지 않고 있을때에 출혈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로는 百會, 頭維, 生髮穴(風池와 風府의 中點)을 主穴로 하고 醫明(醫風穴 後一寸), 上星, 太陽, 風池, 魚腰透絲竹空, 安眠穴(合谷과 三間的 中點)을 배합한다. 早禿이나 脂溢性脫髮에는 百會, 四神總, 頭維, 生髮穴을 쓰고 皮脂過多에는 上星을, 不眠에는 安眠이나 醫明을 배합한다.<sup>37</sup> 耳針의 取穴은 神門, 交感, 心, 頭, 皮質下 등을 이용한다.<sup>83</sup> 이 외에도 注射法이나 割耳法이 있는데 後者는 耳廓을 소독한 뒤에 메스로 양쪽 귀의 內分泌, 皮質下 兩區를 상처내어 出血이 되게 하는 것이다.<sup>83</sup>

이상의 처방은 대부분 從虛論治를 爲主로 한 것인데 드물게 從實論治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 예로 通腑行滯, 培上榮木, 滋生化源하거나 去宛陳莖, 瀉濁解毒, 活血通絡의 처방을 사

용한 것이 있다.<sup>50)</sup>

마지막으로 油風환자가 취해야 할 생활태도 등에 대해서 기술한다.

調養 方法으로 食餌療法 및 生活樣式을 보면 먹어서 動風할 수 있는 음식들인 닭, 거위, 羊肉, 조개(蚌蛤), 河豚(복), 새우, 海腥魚類, 술 등을 忌하고 服藥한 후나 洗滌한 후에 風寒을 피하고 安靜하여야 하며 瘙癢이 생겨도 손으로 긁지 말아서 病毒이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려울 때는 海艾湯등으로 씻어내야 한다.<sup>30)52)</sup>

다른 주의점으로는 過勞하지 않도록 하고 偏食習慣을 버리며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데 계란 노른자, 胡桃肉, 骨湯 등을 섭취하여 다양한 영양흡수가 되게 한다.<sup>48)</sup>

양방의학에서는 圓形脫毛症의 원인에 대하여 아직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의학사전에 기록된 脫毛症의 종류는 원인과 부위에 따라 37개나 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圓形脫毛症(alopecia areata ; a circumscripta, area celsi라고도 한다.)과 관련이 있는 것은 精神性脫毛症, 全頭脫毛症, 汎脫毛症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원인을 자가면역기전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유전적 소인과 정신적 자극이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진다. 자가면역 기전이 관여됨을 시사하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낭주위의 림프구 침윤과 같은 脫毛症의 병리조직소견이 여러 실험적인 기관 알러지와 자연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생각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병리조직소견과 유사하며, 둘째 이 질환이 다른 자가면역 질환과 유사하게 다양하고 지속적인 경과를 가지면서 오래된 병변의 소실과 함께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며, 셋째 항염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에 반응하며, 넷째 여러 가지 자가항체의 발견빈도가 높은 점, 다섯째 가끔 환자들중 일부에서 脫毛症의 가족력이 발견되는 점 등이다.<sup>31)</sup>

이외에도 자율신경 불안정설, 갑상선 등의 호

르몬 이상설, 알레르기설, 중독설 등이 있다고 하나 근거가 미약하다.<sup>7)</sup> 활동성 병변의 병리조직소견에서 모낭주위의 염증세포는 주로 협조 T세포로써 이것은 세포매개성면역기전을 가장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의 근거가 될만한 것으로 脫毛症에서의 증식 세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PCNA(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을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적 검사를 시행해 보니 PCNA표지指수가 정상군에 비해 감소되어 있는 것이 나타났다.<sup>24)</sup> 만약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인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면역기전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세포들의 HLA연구결과에는 유전적감수성을 한 원인인자로써 제시하고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脫毛症의 발생기전을 보면 첫째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각질층에서 각질형성이 방해되며 그 부위의 모발이 약해지고 동시에 모낭은 퇴행기로 되어 모발이 빠지게 되며, 둘째 모낭의 활성화도가 저하되어 이영양성 생장기로 되고, 셋째 강한 영향을 받게 되면 모낭이 퇴행기를 거치지 않고 이영양화된다.<sup>31)</sup> 정신신체적 스트레스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아脫毛症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장남이나 장녀에게서 가장 많았고 맞벌이 부부나 결혼 가정, 부모간의 불화 등이 있을 때 많이 나타나며 신경질적인 아동, 우울성향, 불안장애 등을 보이는 소아들이 많았다. 그리고 소아 脫毛症일수록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sup>13)</sup>

圓形 脫毛症에서 볼 수 있는 병적인 모발의 특징은 休止期 모발의 증가, 感歎符號毛, 더 심한 손상을 나타내는 針狀毛, 準感歎符號毛, 모발이 각질형성부위 상부에서 떨어져나간다.<sup>2)</sup>

발생부위는 남자에서는 후두부, 측두부, 전두부, 두정부 순이었고, 여자에서는 측두부, 후두부, 전두부, 두정부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sup>27)</sup>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로는 사춘기 이전에 발생하거나 재발이 많은 경우, 광범위한 부위를 침범한 경우, 이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아토피 피부염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조감변화를 동반한 경우, 자가항체

의 양성, T세포의 수 및 반응도의 감소 등이 있다.

치료에는 스테로이드의 경구투여 및 병변내 주사, 국소자극제, 접촉항원에 의한 면역요법, 국소자극제, cyclosporin의 전신적 투여, PUVA 요법, 액화질소요법(냉동치료), minoxidil등과 같은 발모제의 국소도포, inosiplex 등이 있고 최근 강력한 면역억제제인 FK506이 국소 도포 시 발모를 촉진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주사요법은 비교적 부작용이 적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탈모부분이 50%이상 이 되면 효과가 감소된다. 全頭 및 汎發性 脫毛症에서는 이들 치료제보다 접촉 면역요법이 많이 사용된다. DNCB, DPCP등이 있는데 이중 DNCB는 변이유발성이 있다고 해서 사용여부에 논란이 많고 DPCP는 강력한 접촉 감작물질로서 좀더 우수하나 자외선에 매우 불안정하다고 한다.<sup>13,31</sup> 냉동치료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자면 경도로 시행할 경우에는 표피-진피를 분리하기 때문에 광선각화증, 지루성 각화증 같은 표피에 국한된 병변을 반흔없이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강하게 시행할 경우 조직 파괴를 통하여 피부 종양을 제거하기도 한다. 냉동치료는 세포조직에 민감하고 특히 신경세포, 모낭과 멜라닌 세포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심한 손상을 입을 시에는 영구탈모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치료효과보다는 시술이 간편하고 부작용이 없다는 면에서, 특히 병변의 크기가 작을 때 일차적인 치료법으로 시도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 냉동요법에 의해서 모낭내 혈류량을 증가시켜 국소 영양공급을 촉진시킬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19)</sup>

원인가운데 심인적 요인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도중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특이한 연구 하나를 소개하면 圓形脫毛症 환자에서 궁상 지문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대조군보다 2.4배 많이 나타나고 재발 환자일수록, 다발성 환자일수록, 가족력이 있을수록 증가되어 나타났다.<sup>9)</sup>

## V. 結 論

지금까지 油風에 관한 文獻의 考察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1. 油風의 字義는 光潤한 모양의 증상이 갑작스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긴 질환이라는 의미이다.
2. 油風의 名稱을 정리해보면 油風과 같은 것으로 斑禿, 禿髮, 鬼舐頭, 鬼剃頭, 咬髮癬 등이 있으며 脫髮은 넓은 의미이고, 초기에 사용되었던 鬚髮禿落, 髮落不生등은 油風의 한 증상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대로 같은 것이라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油風의 原因은 기본적으로 髮爲血之餘라는 觀點에서 血虛를 가져오는 여러 요인들이 모두 原因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血虛風燥(血虛風熱, 血燥風動 등 포함), 氣滯血瘀(情志抑鬱, 肝鬱 등 포함), 肝腎不足의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 진다. 이외에 氣血兩虛, 心血不足, 血瘀毛癢, 脾胃氣虛, 氣陰兩損 등을 제시한 것도 있기는 하다.
4. 油風의 증상은 頭髮이 突然히 脫落하고 皮膚가 光禿하며 圓形이나 不規則形을 드러낸다. 크기와 개수는 다양하며 여러개가 연결하기도 한다. 보통 自覺症狀이 없어서 患者가 無意識中에 발견한다. 睡眠不足이나 精神緊張, 자극을 받은 후에 종종 발생한다.
5. 油風의 內服藥은 일반적으로 血虛風燥證에는 神應養眞丹, 氣滯血瘀證에는 逍遙散合通竅活血湯, 肝腎不足證에는 七寶美髯丹을 중심으로 각각 加減하여 사용하고 있다.
6. 油風의 外用藥은 海艾湯, 鮮側柏葉, 老巖, 桑葉 등이 사용되고 있다.
7. 針灸治療는 梅花針, 七星針, 耳針 등을 쓰는데, 頑固한 禿斑 등에 出血을 시키거나 叩刺法 등을 사용하여 氣血循環을 돕는다. 이 외에 注

射法이나 割耳法도 있다.

8. 油風의 調養方法은 過勞를 피하고 고른 營養을 섭취하며 風寒을 피하고 安靜하며 함부로 긁지 말아야 한다.

이상으로 油風에 관한 文獻考察을 하였는데 油風의 豫後에 대한 韓醫學的 考察 부분이 缺如되어 있어서 좀더 깊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參 考 文 獻

1. 康命吉 : 原本 濟衆新編, 杏林書院, 서울, p.156, 1975.
2. 곽은희 외 ; 발모법과 CaCl<sub>2</sub>용액 분리법에 의한 원형탈모증 모근의 비교 관찰, 대한피부과학회지, 25(1) : 76~83, 1987.
3. 金小榮 : 禿斑에 關한 文獻的 考察, 慶熙大學校大學院, 1990
4. 金容術·李相漸 共著 : 韓醫學用語大辭典, 南山堂, 서울, p.546, 1994.
5. 김태형 외 : 원형 탈모증 환자에서 냉동요법의 효과, 대한피부과학회지, 32(3) : 421~426, 1994.
6. 대한피부과학회 : 피부과학, 麗文閣, 서울, pp.396~398, 1994.
7. 東亞出版社 編輯局 : 現代家庭醫學百科, 東亞出版社, 서울, pp.706~707, 1994.
8. 東醫處方大全 第3卷, 麗江出版社, pp.1748~1750, 1993.
9. 서용주 외 : 원형 탈모증 환자에서 증상 지문의 출현에 대한 통계학적 관찰, 대한피부과학회지, 25(1) : 84~90, 1987.
10. 송점식 : 한방피부미용, 도서출판효림, pp.333~355, 1994.
11. 矢數道明, 編輯部 編譯 : 漢方治療百話 第4卷, 東南出版社, pp.142~144, pp.198~199; 第3卷, pp.170~173, 1984.
12. 中天浩 編譯 : 千家妙方, 成輔社, pp.443~448, 1992.
13. 안건영 외 : 소아탈모증의 임상 및 정신과 적고찰, 대한피부연구학회지, 2(2) : 168~176, 1995.
14. 安載福 : 東醫診療大全, 書苑堂, p.127, 1992.
15. 柳基遠 編者 : 診療와 優秀處方, 成輔社, pp.323~324, 1992.
16. 유재학 외 : 한국인에 있어 유전성 안드로겐 탈모증의 유병율과 임상유형, 대한피부과학회지, 33(1) : 67~75, 1995.
17. 柳志允 : 外科·皮膚科의 辨證論治, 書苑堂, pp.230~231, 1987.
18. 윤석권 외 : 유전성 안드로겐 탈모증 여성 환자의 혈중 DHEA-S 및 Total Testosterone 농도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33(6) : 1060~1065, 1995.
19. 이범주 외 : 원형 탈모증의 냉동치료요법, 대한피부과학회지, 32(3) : 416~420, 1994.
20. 이병희 외 : 韓英羅獨佛醫學大辭典, 壽文社, p.766, 1990.
21. 李鳳教 編譯 : 症狀鑑別治療, 成輔社, pp.773~774, 1992.
22. 李宇柱 : 의학대사전, 도서출판 아카데미서적, p.88, 1990.
23. 이원수 외 : 안드로겐성 탈모증의 병변부와 비병변부에서 안드로겐 수용체의 면역조직화학적 표현비교, 대한피부과학회지, 32(5) : 848~852, 1994.
24. 이학규 외 : 원형 탈모증 환자에서 증식 세포에 대한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의 면역 조직화학적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32(3) : 391~398, 1994.
25. 임성춘 외 : 원형탈모증 환자의 말초혈액내 면역세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24(1) : 94~101, 1986.
26. 전덕규 외 : DPCP(Diphencyprone)의 원형탈모증에서의 치료, 대한피부과학회지, 29(3) : 407~413, 1991.
27. 전태진 외 : 원형 탈모증의 임상적 고찰(제 II보), 대한피부과학회지, 29(6) : 765~773, 1991.
28. 정진호 외 : 횡단절편을 이용한 정상 두피와 원형탈모증 병변의 병리조직학적 관찰,

- 대한피부과학회지, 29(4) : 506~513, 1991.
29. 周命新 編著 : 醫門寶鑑, 醫聖堂, p.430.
  30. 蔡炳允 : 漢方外科, 서울, 高文社, pp.285~286, 1993.
  31. 최홍렬 외 : 전두 및 범발성 탈모증의 임상적 고찰, 대한피부과학회지, 31(3) : 341~348, 1993.
  32. 한은실 외 : 안드로겐성 탈모증의 임상적 고찰, 대한피부과학회지, 33(1) : 44~52, 1995.
  33.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307~310, 1991.
  34. 洪元植 :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11, p.36, p.39, 1985.
  35. 黃度淵 : 醫宗損益, 醫藥社, 서울, pp.308~310, 1973.
  36. 황의방 : 증상으로 알수 있는 신체의 이상, 동아출판사, pp.445~449, 1993.
  37. 顧伯華 主編 : 實用中醫外科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539~541, 1985.
  38. 郭顯汶 : 促髮再生酞治療斑禿, 江西中醫藥, 25(5), p.37, 1994.
  39. 邱嗣康 編著 : 中醫外科, 人民衛生出版社, pp.231~233, 1989.
  40. 馬康慈 : 中醫師臨床手冊, 衆文圖書公司印行, pp.645~646.
  41. 明·樓英 編撰 : 醫學綱目 下冊, 魯兆麟 外點校, 人民衛生出版社, p. 1266.
  42. 明·王肯堂 : 證治準繩(一) 雜病, 人民衛生出版社, pp.852~855, 1991.
  43. 明·陳實功 : 外科正宗, 人民衛生出版社, pp.256~257, 1983.
  44. 辭源(縮印合訂本) : 商務印書館, p.954, 1987.
  45. 尙德俊 主編 : 實用中醫外科學, 山西科學技術出版社, pp.546~547, 1986.
  46. 徐春甫 : 古今醫統大全(八),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p.4349, 中華民國67年.
  47. 徐衡之 主編 : 宋元明清名醫類案, 正編 上冊, 天津市古籍書店, p. 128.
  48. 楊思澍 外 主編 : 中醫臨床大全 下冊,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大星文化社, pp. 911~912, 1991.
  49. 楊世忠 外 : 中醫藥治療斑禿57例, 吉林中醫藥, 第2期, pp.14~15, 1996.
  50. 王羽培 : 斑禿從實論治2則, 新中醫, p.12.
  51. 魏之琇 : 續名醫類案, 宏業書局有限公司, 臺北, p.406, 中華民國68年.
  52. 陸青節 : 萬病醫藥顧問, 壽苑堂, 서울, pp.3~4, 1978.
  53. 李文亮·齊強 等編 : 千家妙方 下卷, 醫聖堂, pp.155~162, 1992.
  54. 李祥云 主編 : 中醫治愈奇病集成, 文匯出版社, pp.608~610, 1995.
  55. 李挺 : 醫學入門, 大星文化社, 서울, pp.212~213, 1984.
  56.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院 校点, 校正 : 醫方類聚 第4卷, 醫聖堂, pp.566~594, 1993.
  57. 朱橚 : 普濟方, 卷五十, 翰成社, 서울, pp.153~159, 1981.
  58. 朱洪範 主編 : 中國秘方全書, 臺灣, pp.485~487, 1992.
  59. 中醫外科學, 東洋醫學叢書, 第8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一·中社, pp.152~153, 1990.
  60. 遲鈍·遲昭 編著 : 新編民間方, 中國醫藥科學技術出版社, 北京, p.111, p.125, 1990.
  61. 陳金廣 : 現代中醫臨證全書, 北京出版社, pp.569~570, 1992.
  62. 陳琳賢 主編 : 新編全國大眾驗方精選, 廣西民族出版社, pp.333~337, 1990.
  63. 蔡陸仙 編 : 中國醫藥匯海 10卷 論說部, 成輔社, pp.506~507.
  64. 詹建華·陳健夫 : 梅花針治療斑禿50例, 福建中醫藥, 26(2) : 36, 1995.
  65. 清·顧世澄 撰 : 瘍醫大全, 人民衛生出版社, pp.412~413, 1987.
  66. 清·祁坤 : 外科大成, 文光圖書有限公司, 臺北, p.211.
  67. 清·鮑相璈 編輯 : 驗方新編, 中國中醫藥出版社, p.7.
  68. 太平聖惠方, 翰成社, 서울, p.657, pp.1242~1244, pp.1251~1256, 1979.
  69. 漢語大辭典(縮印本), 四川辭書出版社·湖北辭書出版社, 成都, p.666, 1993.
  70. 胡照明 主編 : 中國中醫秘方大全 中冊, 文匯

- 出版社, pp.383~388, 1989.
71. 顧伯康 主編：中醫外科學, 人民衛生出版社, pp.309~312, 1987.
72. 難經校釋, 南京中醫學院 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28, 1987.
73. 唐·王焘：外臺秘要, 大星文化社, 서울, pp.358~363, 1992.
74. 隨·巢元方：諸病源候論 校釋, 南京中醫學院 校釋, 人民衛生出版社, pp.761~767, p.1106, p.1375, 1982.
75.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pp.1776~1779, 1982.
76. 明·龔廷賢：萬病回春, 醫聖堂, 서울, pp.267~271, 1993.
77. 明·龔廷賢：壽世保元,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417~421, 1993.
78. 清·吳謙 外：醫宗金鑑, 大星文化社, 서울, pp.116~117, 1983.
79. 清·陳士鐸：石室秘錄,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pp.43~44, 1991.
80. 李世文：當代妙方, 人民軍醫出版社, 北京, pp.447~450, 1990.
81. 文化放送 編：韓國民間療法大全, 금박출판사, 서울, pp.327~328.
82. 謝觀 等 編撰：中國醫學大辭典, 中國書店影印, p.1560.
83. 陳貴廷 外：實用中西醫結合診斷治療學,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pp.1507~1509, 1991.

## ABSTRACT

### A Literature Review of Alopecia Areata

Jang Sung Eun · Chae Byung Yoon

We think that we know what alopecia is. But in detail, we have nothing of alopecia areata. Many kinds of alopecia make us be confused. So, I studied the history ( name, cause, treatment etc.) of alopecia areata through the oriental and occidental medical books. As a result, the investigation of alopecia areata was led to the next conclusions

1. Synonyms of alopecia areata are Bandok(斑禿), Docbal(禿髮), Guyjidu(鬼舐頭), Guychedu(鬼剃頭), Gyobalsun(咬髮癬).

2. Generally, the cause of alopecia areata i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hose are hyeolheopungjo(血虛風燥), Chichehyeoleo(氣滯血瘀), Gansinbujoc(肝腎不足).

3. The important internal uses of alopecia areata are Sineungyangjin-Dan(神應養真丹), Soyosan plus Tonggyuhwalhyeoltang(逍遙散合通痰活血湯), Chilbomiyuom-Dan(七寶美髯丹) etc.

4. The important external uses of alopecia areata are haeatang(海艾湯), Suncheuk-backyeop(鮮側柏葉), Old ginger(老薑), Leaf of mulberry tree(桑葉) etc.

5. The kinds of Acupunture therapy are Maehwachim(梅花針), Chilsungchim(七星針), Ear acupunture(耳針) etc.